현대소설연구(제7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12.76.063

변혁 주체로서의 농민과 동반자로서의 지식인

—단편 「항진기」 다시 읽기

최 성 윤*

요약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 『항진기』를 분석한 이 논문은 기존의 김정한 및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작품의 주제를 작가의 실천적 삶과 연관시킴으로써 반박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반면, 논의의 심화와 확장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항진기』의 인물 태호는 얼치기 사회주의자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사례로 그동안 쉽사리 동의되어 왔다. 그러나 『항진기』에는 태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빠짐없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작가는 박첨지나 두호 등 긍정적 농민 형상의 인물로 하여금 실천 없는 사회주의자의 부정적 측면을 신랄하게 공격하도록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성 인물들의 태호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는 1930년대 후반이라는 당대의 정세 속에서 지식인의 인물 형상을 균형 있게 자리매김하려는 작가 의도의 소산이다.

또한 태호를 바라보는 각 인물들의 시선에는 경멸이나 동정 등 긍·부정적 판단만이 개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지식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기대치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 작가 김정한이 판단한 지식인의 시대적 소명은 변혁의 주체가 아닌 동반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항진기』는 사회주의나 지식인에 대한 작가의 고정된 판단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 주의자의 행동반경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주제어: 김정한, 「항진기」, 농민, 지식인, 주의자, 동반자

목차

1. 「항진기」 재독의 필요성
일제강점기 농촌의 고립된 지식인과 그를 향한 시선들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는 농민과 지식인의 역할 구분
맺음말

1. 「항진기」 재독의 필요성

이 글은 김정한(金廷漢 : 1908-1996)의 소설 「항진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작가 김정한과 그의 소설에 대한 비평 및 연구는 그의 활동 당시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1] 기존의 김정한 연구에서 핵심어로 기능한 것들 중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은 '민족'이다. 민족문학론의 관점에서 김정한과 김정한 소설을 바라보려는 태도가 지속되는 것은 공백기 이후 그의 삶과 문학이 우리 문학사 혹은 문단사에서의 민족문학론 전개 과정과 궤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민족이라는 핵심어를 거론하거나 관련짓지 않더라도 김정한 소설

1) 남상권은 「김정한 소설 연구 - 소설에 나타난 '숨은 힘'에 대하여」(『어문학』 63, 1998, 225-243면)에서 김정한이 '저항의 작가', '사실주의 작가', '민족주의 작가'로 흔히 불리어지며, 김정한의 작품이 '농민문학', '경향문학', '빈궁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까지의 김정한 작가론 및 작품론이 작가의 인생관과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거나 소설의 성립 배경이 되는 시대 및 작품의 주제의식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어서, 소설양식에 부수되는 시학적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이정석은 「김정한 문학 연구의 재정초를 위하여」(『우리문학연구』 22, 2007, 355-376면)에서 기존의 김정한 연구사를 '리얼리즘', '농민문학(민중문학)', '민족문학'의 주요 범주로 유형화했다. 그에 덧붙여 새로운 연구경향으로 '페미니즘'이나 '근대성' 등의 새로운 문제틀에 의한 접근사례를 소개했다. 어찌 보면 현재까지도 김정한과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할 만큼 활발하게 전개되거나 다양하게 분기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에 대한 논의는 그의 생애와 엄밀히 구분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소설이 작가 김정한이라는 텍스트 외적 분석의 요소, 즉 그의 발언이나 행동 및 이력을 동원할 때 좀더 간명하면서도 실질적인 해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김정한이 가졌던, 특정한 지역이나 그곳 주민의 생활상에 밀착된 경험은 작품 속에서 농민, 뱃사람, 하위계층의 여성, 나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데 당연히 기여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뿐만 아니라 교원, 신문지국장 등 실제 작가가 종사했던 직업이 작품 속 인물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작중의 서술자나 초점인물의 현실인식 태도와 지향성이 실제 작가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반증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거칠게 말해서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작가 이미지가 작품보다 앞을 서는 경우라고 할 만한데, 이와 같은 사정이 김정한 논의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한의 작품 자체가 분석을 위한 다양한 관점이나 여러 가지 비평적 잣대를 감당하기에는 단조롭고 도식적이라는 평가도 있다.[2)]

단편 「항진기」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경향 또한 작가 김정한의 이념적 좌표나 독자적 실천의 행보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김정한이 카프 등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거나, 사회주의 자체에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천이 결여된 주의자 및 단체에는 비판적이었다는 등의 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이다.[3)]

2) 강진호는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의 추구 - 김정한론」(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251-271면)에서 김정한의 대부분 작품이 유형화된 서사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점, 르뽀와도 같은 핍진성과 단성적 서사 양식에 의해 현실의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는 「항진기」라는 단일 작품의 해석은 물론 작가론적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항진기」가 사회주의나 지식인에 대한 작가의 고정된 판단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 주의자의 행동반경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항진기」에서의 모색이 일정 기간 이어지고 마침내 수렴되는 과정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지식인상이 후기 작품들을 통해 제시되리라는 가설의 시론적 검증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항진기」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연재본 「항진기」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논문의 본문 및 각주에서 상술하겠지만,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항진기」는 1974년 선집에 수록될 때 개작의 과정을 거쳤다. 연재본과 개작본의 차이에 대해 '검열'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한 선행연구[4]가 있으나, 이를 기점으로 한 확장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두 판본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연재본 「항진기」'와 '개작본 「항진기」'로 표기할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항진기」 이외의 작품도 그때그때의 논의에 끌어들인바, 이후의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협소한 1차 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리라고 본다.[5]

---

3) 예컨대 강진호는 「항진기」를 거론하면서 1930년대의 김정한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짓고, 실천이 결여된 사회주의자에 대한 작가의 경멸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다고 하여 김정한이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한의 이념적 좌표는 진보적 민족주의자에 가까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강진호, 「부조리한 현실과 증언의 서사」, 『김정한 단편선 사하촌』, 문학과지성사, 2004, 453면 참조)

4) 이상경, 「김정한 소설과 검열의 문제」, 조남현 · 김인환 외, 『근대의 안과 밖』, 민음사, 2008, 203-228면.

5) 이번의 연구가 김정한의 특정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김정한의 작품을 읽는 하나의 독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항진기」 한 편의 분석만으로 연구의 의의를 제대로 획득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요산의 다른 작품이나 동시대 작품, 같은 배경을 지닌 작품들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인데,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본 논문에서는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겠다.

2. 일제강점기 농촌의 고립된 지식인과 그를 향한 시선들

1) 농민의 눈으로 바라본 얼치기 주의자

단편 「항진기」(『조선일보』, 1937.1.27-2.11)[6]는 농민 박첨지의 둘째아들 두호를 주된 초점인물로 삼아 전형적 농가의 빈궁한 생활상과 지주 혹은 마름의 횡포에 저항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런데 김정한의 소설세계에서 일견 익숙해 보이는 소작권 박탈과 저항의 이야기는 작품 후반부에 비교적 간략히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판의 초점이 두호의 형 태호에게 맞추어져 있다. 박첨지, 두호와 같은 무고한 농민이 대립 구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 축은 지주나 사음 혹은 그들을 비호하는 일제가 아니라 얼치기 사회주의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항진기」는 등장인물 태호를 사회주의자로 설정하고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박첨지와 두호를 대립시키고 있다. 박첨지는 태호와 마주칠 때마다 매몰찬 꾸지람을 퍼붓는다. 동생인 두호 또한 형에게 경멸에

6)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가 접할 수 있는 「항진기」 텍스트는 『조선일보』 연재본과 사뭇 다르다. 이는 김정한이 1974년 『김정한 소설 선집』(창작과비평사)을 낼 때 상당 부분 개작을 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경로로 확인한 『조선일보』 아카이브 자료에 의하면 1937년 2월 2일자에 6회분이 실려 있고, 이후 순차적으로 연재되어 2월 11일자에 최종 연재분인 14회가 실려 있다. 1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신문 자료가 유실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회부터 5회까지의 연재분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27일 이전의 신문 자료에서는 「항진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물론 개작본은 개작본대로, 작가가 발행 과정에 참여한 작품집에 처음 묶어 넣은 텍스트로서의 의의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본 확정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의 상황 혹은 당시 작가의 현실인식을 작품과 함께 논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재본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연재본 텍스트가 전모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이 논문에서는 개작본 텍스트를 기준점으로 삼되, 필요한 부분은 연재본의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항진기」의 개작에 관해서는 이상경의 논문 「김정한 소설과 검열의 문제」에서 간략하게 다룬 바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가까운 불만감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태호는 태호대로 '농민 근성' 운운하며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대립은 태호가 칠촌 아저씨에게 구걸하다시피 하여 전문학교를 다닌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7] 전문학교를 졸업한 태호는 일자리를 구하라는 부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 동생까지 무식하고 봉건적이라는 이유로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태호는 말하자면 근대 교육제도의 수혜를 입은 지식인이다. 그에게 아버지 박첨지와 동생 두호는 무식하고 고집만 센,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농민일 뿐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태호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정세 인식이 정확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초점화된 서술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태호는 언제나 그에게 비판적인 아버지와 동생의 시선에 따라 판단되고 평가될 뿐이다.

> "일자리를 구해 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타일러도 도무지 그럴 생각은 않지. 그렇다고 국으로 집안일이나 거드느냐 하면 그것도 싫다 하고 밤낮 펀둥펀둥 자빠져 놀면서, 그저 남보기가 부끄러우니 괜히 두삼이나 찾아다니며 무슨 주의니 뭐니 하고 시시덕거리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애닯지 애닯아. 괜히 두삼이 본을 받아가지고서…… 이놈아, 그래도 두삼이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더냐? ①술이나 처먹고 한숨이나 쉬고, 네 말마따나 기생집에 누워서 축음기 소리에 눈물이나 흘리는 그게 사회주의인가? 개 오줌 같은 눈물이지! ②그냥 놀고 지내려니 남부끄러워서 하는 부잣집 자식들의 그 엄청난 잠꼬대 - 어느 놈이 그런 것을 사회주의라고 하더냐? 정말 사회주의자가 들으면 배를 안고 나자빠질 거다."

7) 「항진기」의 태호와 마찬가지로 「추산당과 곁 사람들」(『문장』, 1940.10)의 명호는 재종조 추산당의 원조로 일본 유학을 한다. 명호 또한 작품 속의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아버지와의 사이가 소원한 것도 태호와 닮았다. 많이 배운 자식과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양상이다.

박첨지는 아니꼽다는 듯이 가래침을 탁 뱉는다. 태호는 침 먹은 지네처럼 아무 말이 없다.

박첨지의 불뚱이는 더 계속되었다 -

"인제 다시는 두삼이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기어이 ③사회주의를 하고 싶거든 우리 집에서부터 해보자구나. 노는 놈은 먹지 말라는 그 좋은 말을 다른 데 가서만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도 더러 해 봐. 왜 하필 늙은 부모하고 네 동생만을 그렇게 부려먹으려 드니? 너는 왜 그 좋은 걸 하지 않고 병든 놈처럼 밤낮 자빠져 놀기만 하느냐 말이다. 그게 소위 너희들의 사회주의란 거냐? 콜록콜록……"(강조 - 인용자)[8]

박첨지의 불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공부하겠다는 아들에게 변변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마친 아들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넓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태호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들은 모양인데, 평범한 농민인 박첨지의 입장에서 사회주의가 무언지 사회주의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리는 없다. 단지 그의 시야에 태호와 두삼 등의 인물이 주의자의 대표적 사례로서 포착되어 있던 것이고, 그들이 늘 보여주는 것은 ①과 같은 가증스러운 태도다.

게다가 ②처럼 그냥 놀고 지내기 부끄러워 잠꼬대하는 식으로 사회주의를 한다면 그것은 두삼이 같은 부잣집 자식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일 터이니, 태호가 그에게 휩쓸려 다니며 흉내를 내는 것은 더욱 낯이 뜨거운

8) 김정한, 「항진기」, 『김정한 단편선 사하촌』, 문학과지성사, 2004, 91면. 이하 작품 인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예컨대 『조선일보』 연재본의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 등) 각주에 작품의 제목 및 같은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부분은 『조선일보』 1937년 2월 3일자에 수록되어 있다. 연재본을 살펴보면 개작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회주의'가 대부분 '××주의'로 복자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부분 첫 번째 대화지문 마지막 문장의 '사회주의자'가 연재본에서는 '공산주의자'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재본에서는 복자 처리된 '××주의'가 '공산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이다. 박첨지의 이와 같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경멸에 찬 시선은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자에 대한 온당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는 놈은 먹지 말라'는 것을 '좋은 말'이라고 했으니 박첨지가 사회주의 자체에는 호의적이고, 단지 두삼이나 태호와 같은 얼치기 사회주의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것이다. 작품 속 이항대립의 구도에서 긍정적 축을 맡고 있는 박첨지나 두호의 의식과 발화를 작가의 메시지와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은연중에 개입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①, ②와 같은 얼치기 주의자를 향한 비판적 시선과 ③과 같은 대안 요구는 박첨지의 둘째아들 두호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다. 아버지에게서 책망을 들은 형을 다시 한 번 몰아세우는 두호의 모진 말은 조금도 반박할 틈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차갑고 견고하다.

> "하여튼 나는 버릇없는 만무방이오. 형처럼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형도, 농민 근성이니 뭐니 하는 소리만은 함부로 하지 말아요. 형의 그 꿈만 꾸는 근성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니까요."
>
> "꿈만 꾸는 근성?"
>
> 태호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저 입만 비쭉했다.
>
> "암, 그렇지요. 형은 매양 꿈만 꾸고 있지요.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은 실례를 들어 봐요. 뭘 한 가지 실행한 일이 있나요? 우린 그래도 형에게 기대를 걸어봤는데……"
>
> "……"
>
> 태호는 신청부같이 담배 연기만 후- 불어냈다.
>
> "레닌인가 하는 사람의 조직론만 읽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줄 아오? 조직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노상 한탄만 했지. 이 고장을 위해서 무슨 조직체 하나 만들어나 봤어요?"[9]

9) 「항진기」, 95-96면. 이 부분은 1937년 『조선일보』의 2월 4일자 8회분에 수록되었다. 두 텍스

두호가 본 태호라는 사회주의자는 실천은 않고 꿈만 꾸는 몽상가요, 그에게 기대하는 바는 농촌 부락에서 작은 조직체라도 하나 만들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노는 놈은 먹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말고 너부터 일하라는 아버지처럼, 조직론을 읽었으면 말로만 떠벌이지 말고 조직체를 만들어보라는 것이 동생 두호의 주문이다. 물론 이 또한 두호가 형이 공부했다는 사회주의를 충실히 이해하고 하는 말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형이 평소에 했던 말이나 야학 후원회에 던져준 두어 권 책에 기록된 구절들이 그의 실제 행동과는 모순되는 지점을 두호의 시선으로 포착한 결과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두호나 박첨지의 시선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더라도 태호의 모습은 사회주의자 여부를 떠나 온당한 지식인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말 그대로 설익은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농민의 의식수준에 대한 일방적인 그의 판단도 결코 정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태호가 두호와 벌인 입씨름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뿐 아니라 의식의 변화까지를 추동하는 반성의 기회가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태호는 현재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트를 비교할 때 내용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개작본이 '레닌인가 하는 사람의 조직론'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고 있는 데 비해 연재본은 '레닌의 조직론'이라는 직접적 제시 방법을 택했다. 이는 두호의 의식이나 교양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결말에서 연재본이 '야학 후원회'라는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 데 비해 개작본은 동리의 평범한 농민들로 행위 주체를 보편화한 것과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인인 형과 농민인 동생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개작의 과정에서 작가는 농민인 박첨지나 두호의 의식수준을 당대의 평균적 농민이 지닌 그것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 인물의 눈으로 바라본 불우한 주의자

작가 김정한이 박첨지나 두호와 같은 성실한 농민들을 긍정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얼치기 사회주의자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했다는 의견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랄한 비판을 작가의 의식과 섣불리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항진기」에는 박첨지나 두호의 그것 외에도 태호를 바라보는 다른 인물의 시선들이 존재하고, 그것들 또한 빠짐없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영애도 두호의 심정을 짐작 못하는 바가 아니었다. 두호가 자기를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기도 두호의 그 씩씩하고 현실적인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내다운 힘미더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쥐면 터질까, 불면 날까 하면서 자기를 길러온 어머니의 생각이 과연 어떨는지, 그리고 또, 아니 그보다 두호의 가정 형편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태도를 결정해야 좋을지 몰랐다.
>
> 게다가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두호의 형 태호였다. 그는 그즈음 서울서 돌아온 이후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애가 기식하고 있는 자기의 칠촌 아저씨 댁을 드나들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영애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찰거머리같이 추근추근한 태도가 싫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회에 대한 커다란 불만을 안은 채, 주위의 멸시와 몰이해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를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지조랄까, 아무튼 그런 세속적이 아닌 점에 동정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10]

영애는 두호의 집에 드나드는 양잠 지도원이다. 두호는 영애에게 은근한 연애감정을 품고 있다. 그런데 태호 또한 영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중이니 말하자면 잠복된 삼각관계다. 드러내 놓고 세 사람이 애정과

10) 「항진기」, 89-90면. 이 부분은 1937년 『조선일보』의 2월 2일자 6회분에 수록되었는데, 세부 표현의 첨삭만 이루어졌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관련한 갈등에 휘말린 적은 없지만, 모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다.

영애는 두호의 "씩씩하고 현실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위의 멸시와 몰이해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를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태호에게도 동정이 간다. 영애가 보기에 두호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태호의 단점이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점만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두호의 장점은 건실한 농민의 긍정성이며 태호의 장점은 지조 있는 지식인의 긍정성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애는 두삼, 태호와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사상과 무슨 꿍꿍이를 가졌는지 당연히 눈치 채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두삼과 태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여실히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 두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태호의 답답한 상황 또한 동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위치한 영애의 애매한 태도를 낳는다.

두호 어머니의 시선 또한 살피지 않고 지나칠 수 없다. 다른 가족들의 비난이나 원망이 쏟아질 때마다 "그놈은 왜 그리 철이 안 나는지"[11] 운운하며 태호를 감싸고 변호한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 박첨지는 잇달아 나오는 쇠기침 바람에 말이 뚝 끊겼다. 그 틈을 타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
> "이제 그만 진정해요. 저도 이담부터는 무슨 셈이 안 들겠어요?"
>
> 속으로는 겁을 내면서도 하는 말눈치 같았다.
>
> "뭐, 셈이 들어?"
>
> 박첨지는 마누라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
> "그래, 셈들 놈이 저러고 있겠소? 그놈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한 마디

11) 「항진기」, 85면. 이 부분은 현존 연재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연재본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다면, 5회분 정도에 수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 귀담아듣고 있는 줄로 아요? 천만에! 허우대는 아주 씻은 배추 줄기 같지만 속은 딴판이라오. 아무리 내가 빌듯이 타일러도 쇠가죽 무릅쓴 놈같이 그저 똥구멍으로만 숨을 쉬었지. 듣긴 뭘 들어! 할멈이 들어서 저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잖소? 공연히 그놈의 복에 없는 전문학교는 보내가지고…… 글쎄, 저놈 공부시키느라고 즈 아저씨 댁을 찾아다니면서 갖은 눈총을 무릅쓰고 애걸복걸한 보람이 뭐란 말요? 어쨌든 자식의 말이라면 너무나 달게 듣거든!"(강조 - 인용자)[12]

위 인용문을 보면 어머니는 박첨지나 두호와는 달리 장남 태호에 대한 기대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젠가는 철이 들거나 셈이 들리라는, 그래서 배운 사람답게 일할 수 있으리라는 바람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담'까지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다. 박첨지의 말을 잘 살펴보면 애초부터 태호가 전문학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헌신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농민 근성을 운운하고 정세 타령을 하던 태호를 박첨지와 두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최소한 어머니만은, 어쩌면 영애까지도 태호의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려고 애썼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태호는 설익은 사회주의자이기보다 때를 만나지 못한 지식인이다. 그러니 배운 사람다운, 제대로 된 모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처럼 「항진기」의 작중 인물 박첨지와 두호의 태호를 향한 시선은 태호 어머니나 영애의 그것과 사뭇 차이가 난다. 비판적인 시선을 지닌 인물군과 동정적인 시선을 지닌 양쪽 인물군의 차이는 태호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그를 통해 기대하는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이

12) 「항진기」, 91-92면. 이 부분 또한 연재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아내를 타박하는 박첨지의 대화지문 중 '그래 변호사가 됐소?' 하고 묻는 한 문장이 빠져 있다. 태호가 전문학교에서 법 공부를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상적인 형상 또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박첨지나 두호가 태호에게 바라는 점은 대화지문을 통해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는 반면, 태호 어머니나 영애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박첨지, 두호 등이 태호에게 건넨 '무슨 일이든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는 주문과 달리, 「항진기」의 여성 인물들의 속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기다림의 태도에 가깝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유다른 시선을 받고 있던 태호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할 것인가는 작가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작가의 의식지향을 가늠하려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박첨지와 두호의 인색한 평가만으로 태호라는 인물을 설명할 수 없다. 어머니와 영애의 동정적인 시선이 겹쳐졌을 때 태호의 인물 형상이 입체화된다.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태호에 대한 두호의 시선도 어머니와 영애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게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태호를 평면적 인물로 간주하고 단선적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관점은 부분적으로나마 수정될 필요가 있다.

3.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는 농민과 지식인의 역할 구분

1) '연재본 「항진기」'에서 말하지 못한 것

이 글의 앞에서 언급했듯 현대 독자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항진기」는 1974년에 개작된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는 1937년 연재본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최초 창작 시기인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검열이라는 텍스트 외적 조건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개작본의 '사회주의'가 연재

본에서는 ‘××주의’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등의 눈에 띄는 차이를 검열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13)]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후반은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에게 자신의 입지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부여한 시대였다. 작가들은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작품을 써내야 하는지에 골몰하면서도 좀처럼 만족스러운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정한 역시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고, 『항진기』 등 당시에 쓴 소설들은 자기 점검과 방향성 모색의 과정에서 제출된 문학적 대응의 결과물일 터이다.

1회부터 5회까지의 연재분이 소실된 불완전한 모습으로나마 연재본 『항진기』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작본과 비교하여 차이를 설명하는 작업은 작가의 변화한 의식을 추적하는 것보다 1930년대와 1970년대라는 시대상황의 차이에 대응시키는 편이 조금 더 생산적일 것 같다. 지식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 및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김정한의 생각이 일생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1930년대라서 하지 못한 말과 1970년대에는 하지 않은 말의 의미를 각각 되새길 수 있겠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연재본의 자료를 개작본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태호의 행방에 대한 지시적 표현 유무, 영애를 둘러싼 남성 인물들의 각축과 강간 미수 사건의 묘사 유무, 어머니의 원망 섞인 폭백과 두호의 시선에 포착된 헌신적 모성에 관한 서술 유무 등이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연재본에는 존재하나 개작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뒤의

13) 복자 처리된 ××가 사실 ‘사회’가 아닌 ‘공산’이었다면, 이는 다시 1970년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차이, 즉 또 다른 성격을 지닌 검열의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작중인물 태호를 사회주의자라고 하든 공산주의자라고 하든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현재의 독자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라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념이 비슷한 농도나 무게로 느껴졌을 리가 없다.

한 가지는 연재본에 없었으나 개작본에는 추가된 내용이다. 그 외에도 대동소이한 내용 전개 속에서 '개작본 「항진기」'에 추가된('연재본 「항진기」에는 없었던) 소소한 표현들이 있다.

> "그럼 아무 직업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 "그렇지요. 형이 싫어하는 관공서 같은 데 말고 말예요."(강조 - 인용자)
> "다시 말하면, 취직을 위한 취직, 즉 자기란 것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겠지?"[14]

위 인용문은 개작본의 일부인데, 연재본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일을 하지 않는 형을 나무라는 동생과 할 일이 마땅치 않다는 형의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이다. "형이 싫어하는 관공서 같은 데"란 무엇을 뜻하는가? 군청이나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을 태호가 의식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이다.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일제의 부역자가 되거나 수탈의 공범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태호가 일제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민족 정체성은 보유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근거이다.

연재본에서 다루지 않고 개작본에 추가한 내용 중 어머니의 시선이 확장되고 강조된 부분을 이와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개작본의 후반부, 박첨지 집안과 사음의 갈등이 장면화되기 전에 태호, 두호 형제와 영애의 삼각관계는 연재본과는 달리 싱겁게 마무리되고 만다. 자신의 일을 끝낸 영애가 돌아간 것은 물론 태호마저 집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태호가 사라진 후 어머니는 작심한 듯 그동안 담아 두었던 말을 끄집어낸다.

14) 「항진기」, 94면.

"네 아버지는 죄가 많을 거다. 자식을 어쩜 저렇게까지 원망을 한단 말고? 네 형이 집을 나간 건 바로 아버지 때문이지. 하고 싶어서 공부 좀더 한 것, 세상이 더러우니 딴생각도 내 보고, 왜놈들에게 의심도 받고…… 그래,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자나 깨나 들볶아만 댔으니 전들 어찌…… 나무아미타불!"[15]

어머니의 생각에 태호가 한 잘못이란 '하고 싶은 공부를 한 것', '세상이 더러우니 딴생각을 내본 것' 정도일 뿐이고, 그러다가 왜놈들의 의심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두호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공부가 사회주의 공부였고, 딴생각을 내보았다고 하는 것이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며, 그 때문에 왜놈들의 의심을 받은 것이라면 태호의 작품 속 현재 상황은 일제의 감시 속에 손발이 묶인 것과 다름이 없다.

하고 싶은 공부를 했으나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 태호가 파악한 정세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정세를 핑계 삼아 현실을 도피하듯 뱃놀이나 다니고 노래나 불렀다면 단순히 철없다는 말로 감싸기 어려운 노릇이겠지만, 생활이나 생계를 위한 소극적 친일이라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 태호가 견지한 입장이었다면 영애나 어머니의 동정적인 시선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전 장의 인용문 속, 영애가 생각한 "주위의 멸시와 몰이해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를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지조"란 이러한 태호의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판단일 것이다.

요컨대 '연재본 「항진기」'에서 말하지 못한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15) 「항진기」, 108면. 이 부분은 연재본에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개작이다. 1937년 『조선일보』 연재본에는 태호가 영애 등과 놀러 나간 이후 칠촌 아저씨의 영애 강간 미수 사건 등 복잡한 사건들이 서술되는데, 개작본은 그런 치정이나 연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과 아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대화지문 및 서술을 배치했다. 연재본에서는 영애가 마을에서 사라진 후 낙심한 태호의 가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개작본에서의 태호는 칠촌 아저씨, 영애 등과 차를 타고 놀러 나간 그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

혹은 일본과 관련된 직 간접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작가에 의해 선제적으로 검열되거나 삭제된 일제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저항적인 농민인 두호나 박첨지가 아닌 지식인 태호를 성격화하기 위해 쓰였다는 점이다.

2) '개작본 「항진기」'에서 말하지 않은 것

'연재본 『항진기』'와 '개작본 『항진기』'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로 여성 인물과 관련된 작품 후반부의 에피소드 속에서 발생한다. 연재본이 영애를 중심으로 한 남성 인물들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 개작본은 그 대신 두호가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에 감명 받는 장면을 배치한 것이다.

개작본이 말하지 않은 연재본 후반부의 에피소드는 결국 영애를 둘러싼 형제의 경쟁구도에서 동생 두호가 승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강간의 위험에서 도망쳐 나온 영애를 두호는 매몰차게 뿌리쳐 버리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영애는 두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자신의 애정을 고백한다. 농민의 긍정성에 대한, 중간자적 여성 인물의 최종 승인인 셈이다.

양잠 지도원으로 머무는 동안 영애는 태호의 아저씨 댁에서 기식하고 있었다. 영애가 태호의 아저씨로부터 강간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 밤, 태호도 그 집에서 자고 있었다. 간신히 아저씨의 손에서 벗어난 영애는 가까운 곳에 있는 태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두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두호로부터 외면당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두호에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서신을 보낸 것이다. 지조 있는 지식인과 건실한 농민의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저울질하던 영애의 선택은 결국 두호였다. 이는 당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체는 다름 아닌 농민이라는, 작가 김정한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어려운 사정은 지식인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박첨지나 두호 등 농민형 인물들의 바람과 영애나 어머니 등 여성 인물들의 바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피고, 종국적으로 태호가 어느 길을 좇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태호가 집을 나갈 때의 상황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아버지나 동생의 등쌀을 피해 내빼는 것으로만 넘겨짚기 힘든, 우울하고도 비장한 분위기로 착색되어 있다. 태호가 가출하던 전날 밤 두 형제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날이 밝자 태호는 무슨 일인지 식전부터 서투른 도리깨질로 두호의 일을 거들어주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니, 아침을 먹자마자 사라진다. 두호가 형을 찾아 칠촌 아저씨 집으로 갔을 때는 이미 태호와 영애, 칠촌 아저씨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두호가 마지막으로 본 형의 모습은 일부러 동생을 외면한 냉정한 옆얼굴이다.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튿날 모두 돌아왔는데 형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개작본'의 경우 작가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태호와 따로 떨어져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차 안에 비스듬히 기대서 먼 산만 바라보던 그 얄밉던 표정이, 실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과 그러한 결심을 담은 것이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파왔다.[16]

작가는 독자에게 더 이상의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려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작중 인물들은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표정들을 짓는다. 무언가 짚이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영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믿기나 하

16) 『항진기』, 109면.

는 듯이'[17] 머리를 젓고, 사음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모양[18]인지 박첨지를 위로하다가 두호에게 타박을 받는다. 그리고 '두호는 형을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면박했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나서 마음이 한결 빳빳해졌다.'[19]

이처럼 개작본 「항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태호가 고향을 떠난 이유에 대해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박약하다. 마지막으로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만 해도 얄밉다고 느꼈던 두호가 '마음이 아파왔다'고 하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없다. 태호가 한 '그러한 결심'이란 대체 무엇이고, 사음이 들었을지 모르는 '그런 말'은 무엇이었을까? 대체 꿈만 꾸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태호는 어디로, 무슨 일을 하러 간 것일까? 공교롭게도 '연재본 「항진기」'는 이와 같은 질문에 비교적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 창졸히 나와 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모다들 염려했지? 나는 지금 어떤 친구의 집에서 먹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자리를 찾겠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
> 나는 그대를 존경한다. 그대는 확실히 의지가 굳센 '실행의 인'이다. 내가 공상가인 대신에.
>
> 그리고 그대의 충고를 달게 받겠다.
>
> 확실히 내게는 '함렛트'나 '오(?)로-모흐'의 제자가 될 위험성이 많음을 자각하기 때문에.
>
> 그리고 그곳 일은 전부 그대에게 맡긴다. 내 일은 조금도 걱정 말아라. 다음에 또 편지 하마.
>
> 오월 ××일, ××일보 ××지국, 박태호[20]

17) 「항진기」, 107면.
18) 「항진기」, 109면.
19) 「항진기」, 110면.
20) 김정한, 「항진기」, 『조선일보』, 1937.2.10. 일부 표기를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하였음. (?)는 판

위 인용문은 '연재본 「항진기」'의 작품 말미에 소개된 태호의 편지 내용이다. 태호는 두호에게 전하는 말에서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근황을 밝힌다. 재미있는 것은 편지의 끝 부분에 동생이 맡아야 할 '그곳의 일'과 자신이 담당할 '내 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이 할 일과 주의자요 지식인이 담당할 만한 일은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배운 사람으로서의 우월감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기규정으로 읽힌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일보 ××지국'이라는 위치 정보를 흘리고 있는 점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곳을 그저 태호가 신세를 지고 있는 '친구의 집'일 뿐이라고 단순히 지나쳐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가 머무는 곳의 성격을 특정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가까운 장래의 일을 암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21]

작가 김정한은 「항진기」를 연재하던 1937년 당시 교원 신분이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1940년에는 동아일보 동래 지국을 인수하여 경영한 바 있다. 1940년의 김정한은 교사로서의 일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자 언론계 종사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런데 연재본 「항진기」의 위 내용을 보면 작가는 1937년 당시부터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대응의 방향을 모색했고, 앞으로의 일 중에 민족 언론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김정한의 경험을 집약한 소설 1970년대 작품 「위치」(『신동아』, 1975.6)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독 불가.

21) 이에 대해 이상경은 "태호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신문사 지국을 경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 온다. 실제 행동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셈이다."(이상경, 「김정한 소설과 검열의 문제」, 조남현 · 김인환 외, 『근대의 안과 밖』, 민음사, 2008, 211면)와 같이 단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주변 정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하나의 추론일 뿐, 연재본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없다.

> 삼일운동 이후 한동안 누그러지듯 하던 일제의 무단정치가 '미나미(南)' 총독의 부임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쳐들 무렵이었다. 일본 안에서도 군국주의 거물로 손꼽히던 그는 부임 즉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란 걸 선포해서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끔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한편 내선일체란 구호 하에 우리 민족 말살 작업에 한결 박차를 가했다. 저들의 소위 신사 참배, 조선어 교육 폐지, 일본식 창씨개명 따위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갔다.[22]

미나미 총독이 조선에 부임한 것은 1936년 8월의 일이었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공포된 것은 1936년 12월의 일이다. 『항진기』의 인물 박태호가 사상범으로서 보호관찰의 대상이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호가 이야기하는, 뜻한 바대로 일할 수 없는 정세가 1936년 이후 급변한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을 리도 없다. 작중의 표현인 '왜놈들의 의심'이란 보호관찰의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태호의 새로운 출발 즉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이 민족 언론을 위한 봉사로 암시되었다면, 두호에게 맡겨진 일 즉 농민의 역할은 당대의 모순에 저항하고 왜곡된 질서를 전복시키는 투쟁의 실천임이 작품의 말미에 드러난다. 농민 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되고 지식인은 그에 공감하고 대변하는 동반자로서 조력의 역할을 맡는 구도이다. 이와 같은 저항적 농민(민중)과 동반자적 지식인의 연대는 『모래톱 이야기』 등 김정한의 후기 작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된다.

앞서의 장에서 짧게 언급하였지만, 연재본에서의 '××주의'는 개작본에서 '사회주의'로 바뀌었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산주의라는 말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재본에서 태호의 반일 감정을 묘사할 수 없었듯이 개작본에서 태호를 공산주의자라

22) 『위치』, 366면.

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밖에 연애와 혁명을 관련짓고 지식인 처녀와 농민 총각의 동지애적 연대를 그려내거나 농민의 승리를 구가하는 낙관적 결말을 맺는 등의 연재본에서 나타나는 도식적 설정은 개작의 과정에서 할애되거나 순화되었다.

4. 맺음말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한 단편 「항진기」를 분석한 이 논문은 기존의 김정한 및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명징한 이항대립 구도에 의해 표출되는 작품의 주제를 작가의 실천적 삶과 연관시킴으로써 반박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반면, 그러한 경향이 논의의 심화와 확장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항진기」의 인물 태호는 얼치기 사회주의자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예로 그동안 쉽사리 동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태호에 대한 시선은 단일하거나 유사한 각도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박첨지나 두호 등 긍정적 농민 형상의 인물로 하여금 실천 없는 사회주의자의 부정적 측면을 신랄하게 공격하도록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성 인물들의 태호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1930년대 후반이라는 당대의 정세는 태호의 공허한 변명 속 습관적으로 거론되는 근거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지식인이 무기력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딱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영애 등의 시선은 태호라는 지식인 인물 형상을 균형 있게 자리매김하려는 작가 의도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태호를 바라보는 각 인물들의 시선에는 경멸이나 동정 등 긍부정적 판단만이 개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지식인들에게 부여할 수 있

는 기대치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 태호의 현재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은 그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과 함께 일하기를 바라지만, 태호의 장래를 희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은 그가 스스로의 일을 찾아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연재본 「항진기」'와 1970년대의 선집에 수록된 '개작본 「항진기」'의 내용을 비교하며 검토해본 이 글은 분석의 과정에서 김정한이 생각한 바람직한 지식인상을 도출해보려 했다. 그것은 민중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흐름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가진 힘을 보태는 동반자적 지식인의 형상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정한, 「항진기」, 『조선일보』, 1937.2.2.-2.11.(6회-14회)

김정한, 『김정한 단편선 사하촌』, 문학과지성사, 2004.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호, 「1930년대 후반기 신세대 작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의 추구 - 김정한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251-271면.

김윤식, 「추산당과 가야부인 - 김정한론」, 『한국문학논총』 50, 2008, 5-45면.

김택호, 「김정한 소설의 저항의식과 유교적 세계관」, 『현대소설연구』 34, 2007, 249-264면.

남상권, 「김정한 소설 연구 - 소설에 나타난 '숨은 힘'에 대하여」, 『어문학』 63, 1998, 225-243면.

박재범, 「김정한 소설의 진보담론 연구 - 1960년대 이후 민족문학론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6, 2007, 147-162면.

배경열, 「김정한 초기소설의 특질」, 『한국언어문학』 47, 2001, 299-325면.

송명희, 「김정한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5, 1996, 261-289면.

이상경, 「김정한 소설과 검열의 문제」, 조남현 · 김인환 외, 『근대의 안과 밖』, 민음사, 2008, 203-228면.

이정석, 「김정한 문학 연구의 재정초를 위하여」, 『우리문학연구』 22, 2007, 355-376면.

이희환, 「1930년대 신세대 작가의 두 갈래 길 - 김정한과 김동리의 등단작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17, 2007, 213-238면.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현대소설연구』 35, 2007, 27-46면.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54, 2010, 243-272면.

<Abstract>

Peasants as Revolutionary Subjects and Intellectuals as Companions
- A Review of *Hangjinki*

Choi, Sung-Yun[23)]

This paper analyzed the short story *Hangjinki* by Kim Jeong-Han set in the rural vill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isting studies of Kim Jeong-Han and his literature could reach a clear conclusion by associating the subject of the work with the artist's practical life, but did not lead to deepening and expansion of discussion.

Tae-Ho, the character of *Hangjinki*, has been regarded as an example of the author's critical view of the incompetent socialist. However, in *Hangjinki*, there are various gazes that look at Tae-Ho, and they all need to be considered. The author makes a positive peasant character aggressively attack the negative aspects of a socialist without practice, but reveals the sympathetic gaze of a female characters from a different angle. This is the result of the author's intention to express the figure of the intellectual from a neutral point of view in the situation of the late 1930s.

In addition, the gaze of each person looking at Tae-Ho reflects not only positive or negative judgments such as disdain and sympathy but also expectations that can be given to intellectuals. Kim Jeong-Han thought that intellectuals should be companions, not subjects of revolution. And *Hangjinki* is not the work of the author's fixed judgment about socialism

23) Sangji Univ.

or intellectuals, but the work that expresses self-inspection and seeking prospects of intellectuals.

Key words: Kim Jeong-Han, *Hangjinki*, Peasant, Intellectual, Ideologist, Companion

투 고 일 : 2019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